

인디 청년문화의 가로공간 설계¹⁾

- 홍대앞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안 -

진양교* · 김경윤** · 정혁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 · 도시 · 조경학부 · **(주)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 *** (주)삼안건설기술공사

Designing the *Indi* Youth Culture on the Street

Chin, Yang-kyo* · Kim, Kyoung-yoon** · Chung, Hyuk-joo***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 **Hanlim Landscape Design Office · ***Saman Engineering Corporation

ABSTRACT

This design proposal was accepted to a design competition for the improvement of *Indi* Youth Street, Mapo-Gu, which was hel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June, 2000. The 'Hong-ik University District' projected area consists of several streets, where the independent and youth culture unique to this area is blossoming-*Indi* music, underground arts, and historic meaning of the area as an estuary of Mapo.

The site is also expected to attract many citizens and foreigners because of convenient accessibility of the new subway station to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because of many attractions on the street- foods, music, art and people.

Accordingly, the proposal set the main design concept of this project as 'the Street of Youth Culture' considering its special and social status as well as the physical improvement of the street environment. With this concept in mind, the proposal designed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conditions based on the motive of 'the Street of Youth Culture', having *Indi/under art*, *Indi/ under music*, *Indi/under drama* and *Indi/multimedia animation*.

This design proposal of the Street of Youth Culture consist of three segments, which symbolize the millenium Youth Plaza, Multimedia Animation Pocket and Arts Exhibition Pocket based on unity and balance. This plan has the ultimate aim of making the district one of the people's favorite streets in Seoul, which people love to visit again and find the vivacity of the new millennium youth culture.

Key Words : Street, *Indi Culture*, Youth Culture, Street Environment Underground

I. 서론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길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자동차를 위한 길로 바뀌었고 많은 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도시 공간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대응하여 서울시에서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으로 여러 가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의 대상지인 「마포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설계 공모전이 이루어졌고 2000년 6월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계획안이 당선안으로 채택되었다.

본 설계의 대상지인 홍대앞은 서울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대학 예술문화'라는 지역 특유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펑크, 락 등 소위 인디 음악(indi music)이나 언더 미술(underground art) 등의 자생 청년문화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상지는 이러한 잠재된 문화가 표현되어 특화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먹자골목 형태에 대학 문화가 부분적으로 관입되어 있는 가로 형태로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거리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하게 통과하는 길이 아닌 시민의 보행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마포구 문화환경으로서 시범이 될 수 있는 가로 공간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서 마포구의 옛 역사를 자연스럽게 청년 문화공간으로 연결하여 문화가 읽히는 문화 이벤트 중심의 가로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대상지 이해

1. 대상지 개요



그림 1. 대상지내에 있는 전시장



그림 2. 대상지내의 거리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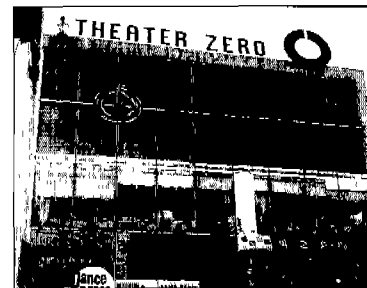


그림 3. 씨어터제로 소극장

본 설계의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18에서 서교동 329를 잇는 구간으로 폭은 15-45m이고 총 연장은 1280m이다. 피카소 거리등 홍익대학교의 대학 예술문화가 인접 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예술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다.

2. 대상지의 역사적 공간적 맥락

홍익대학교의 대학 예술문화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공간적 맥락을 바탕으로 펑크, 락, 테크노 등의 소위 언더/인디 음악(indi music)이나 인디/언더 예술(underground art)등의 자생 청년문화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자생적 문화가 읽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는 형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인디 또는 언더 계열의 자생 청년 문화를 양생적 그리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소극장, 락카페, 고급레스토랑, 펑크와 테크노바, 화랑,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등이 자연스럽게 유치될 수 있도록 문화 이벤트 중심의 가로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지에 마포구의 옛 역사가 간직되어 있는 동교동과 서교동이 위치하므로 마포항의 이미지 구현을 통해 마포구의 옛 역사를 자연스럽게 청년 문화공간으로의 연결이 필요시 되고 있다.

3.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특성

현재의 설계 대상지 도로는 통과 교통이 아주 작은 국지도로로 기존 전철 2호선의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공사중인 전철 6호선의 상수역과 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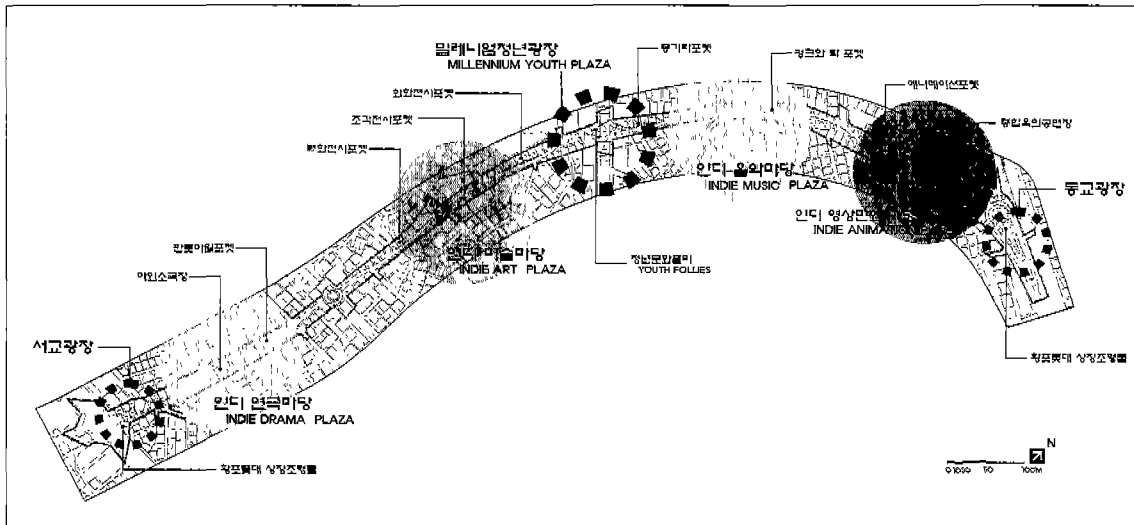


그림 6. 공간 이용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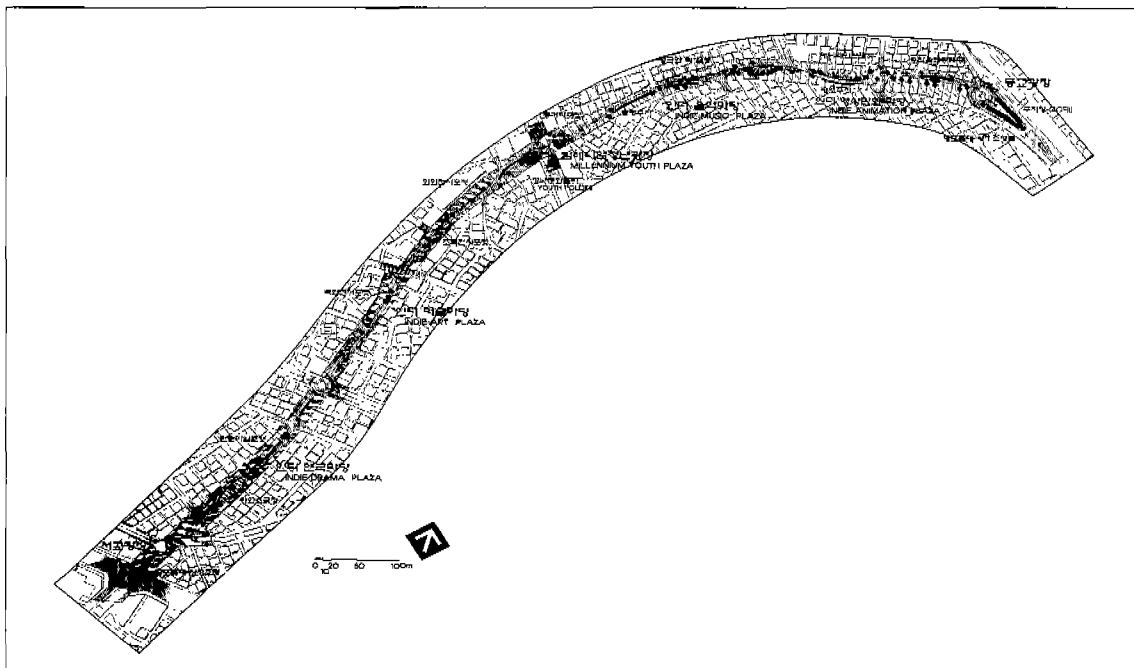


그림 7. 마스터플랜

기를 이끌 수 있고 문화 이벤트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밀레니엄 청년문화를 상징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여러 상징 폴리들을 통해 청년문화를 상징화하였고 광장 중앙엔 황포 돛대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였

다. 또한 녹지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유도하였으며 험프를 이용해 차량속도 통제해 보행공간의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2) 영상 애니메이션 포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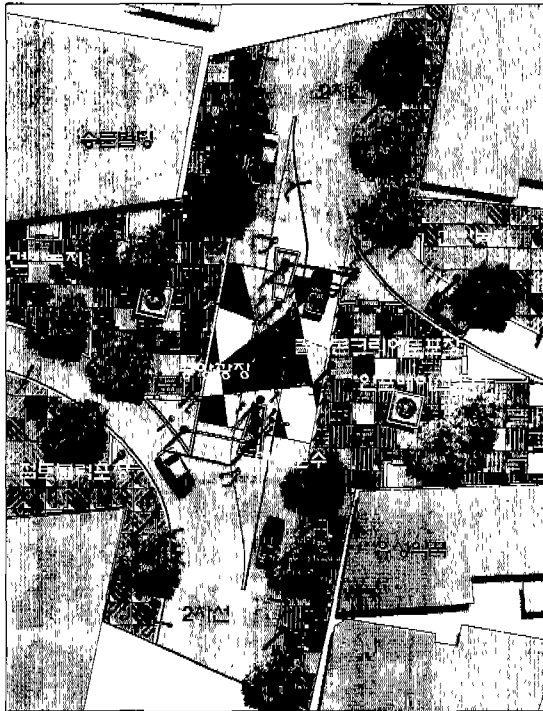


그림 8. 밀레니엄 청년광장 평면도

영상 애니메이션 포켓은 각 광장들의 내부에 조성되는 각종 이벤트 마당 (판토마임 포켓, 회화전시 포켓, 테크노 포켓, 애니메이션 포켓 등)의 한 부분으로서 기본적인 형태는 마포구의 심볼인 타원의 형태를 적극 반영하였다. 마포구의 상징인 타원을 사용하여 광장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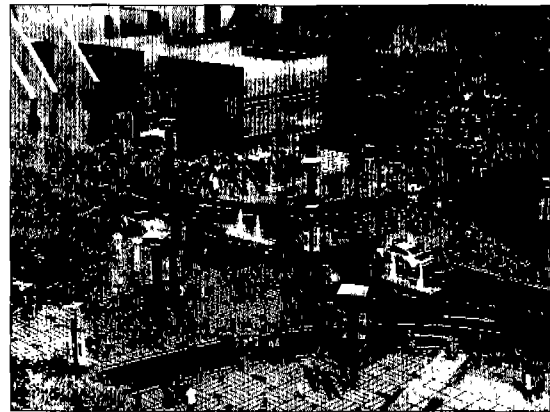


그림 9. 밀레니엄 청년광장 이미지

상을 구현하였고 바닥포장 디자인 또한 물결모양에서 도출하였다. 특히 공연과 열린 옥외 활동을 위해 무대 공간을 조성하였고 조명과 스피커가 달린 플라자 라인을 이용해 흥미 유발과 공간감을 주도록 하였다.

3) 회화 전시 포켓

회화 전시 포켓은 도로의 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낮은 지형에는 쉼터가든을 조성하였고 부분적으로 급사면을 두어 벽천과 물이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미술 전시라는 젊음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전시벽을 두고 휴식과 우연적 외부활동이 일어날수 있는 넓은 계단을 두었으며 도로의 상단부를 횡단하는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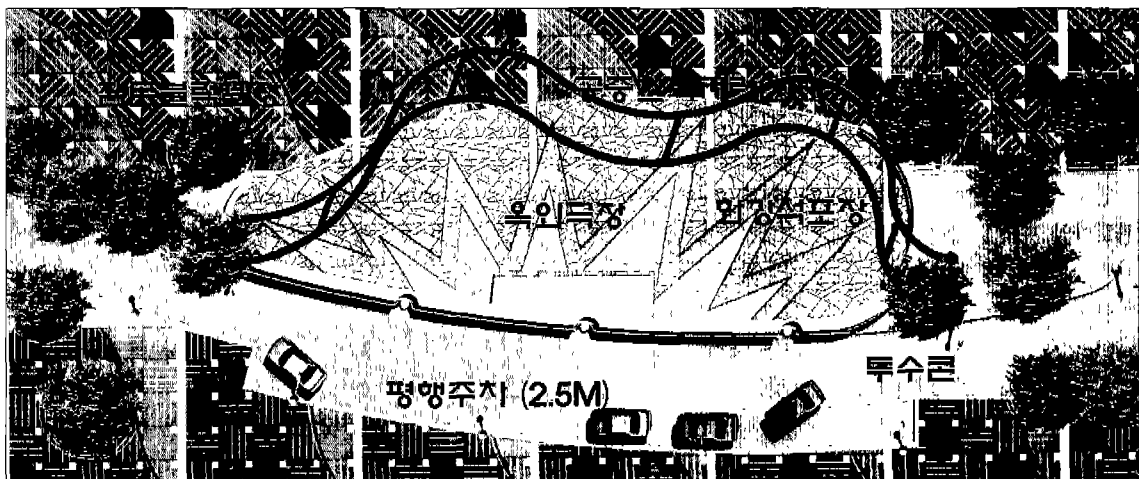


그림 10. 영상 애니메이션 포켓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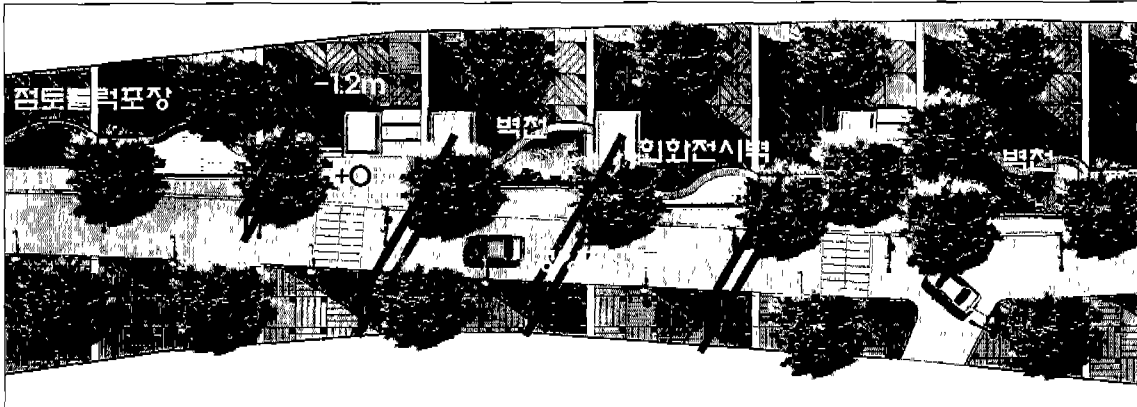


그림 11. 회화 전시 포켓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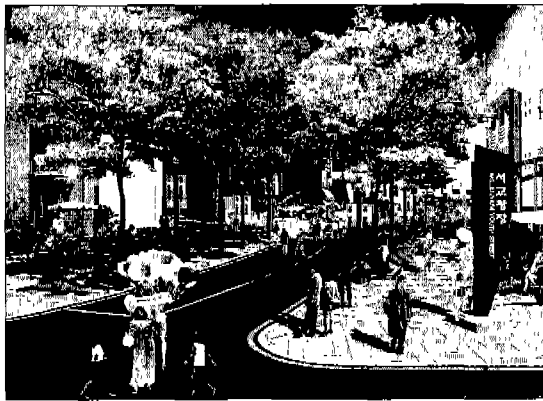


그림 12. 서교광장 이미



그림 13. 퍼포먼스 광장 이미지

위의 차량과 보행자가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부분 상세 이미지

서교 광장에는 전체 가로 입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물과 바닥 포장 패턴을 도입하여 진입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옛 마포항의 역사를 상징하는 황포 돛대를 조형화한 상징물로 마포구의 역사성을 구현하였다.

인디 연극 마당은 인디 청년문화 중 연극을 이미지한 판토마임 마당을 조성하고 연극의 스크린 효과를 갖는 가벽을 도입하여 독특하고 탈일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 외 종합 퍼포먼스 광장의 경우는 축제와 음악 콘서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크노 포켓을 조성하고 야외 부스와 스피커, 조명등이 달린 플라자 라인을 설치하고 수변 공간을 두어 공간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동선계획

현 대상로는 통과 교통을 위한 도로가 아니므로 주차 공간 확보 및 교차점 처리가 유리하고 가로 특성상 보행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일방통행 방안을 도입하였다.

내부 동선체계는 통행 차량의 속도 감소효과와 다양한 가로 경관의 창출을 위해 곡선형 도로를 채택하고 기존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이면 도로의 일방통행 시스템을 확대하여 지역 전체에 적용하였다. 4m 폭원의 차도로 비상시 임시정차를 허용하여 차량통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2.5m 폭원의 일렬 평행 주차공간을 필요 공간에 도입함으로써 내부주차 수요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인접해 있는 각 전철역으로부터 보행 우선 도로와 필요한 구간 (홍대입구 전철역 - 대상지 - 서교로 구간)에 보행전용도로를 도입해 보행 접근성을 최대화 시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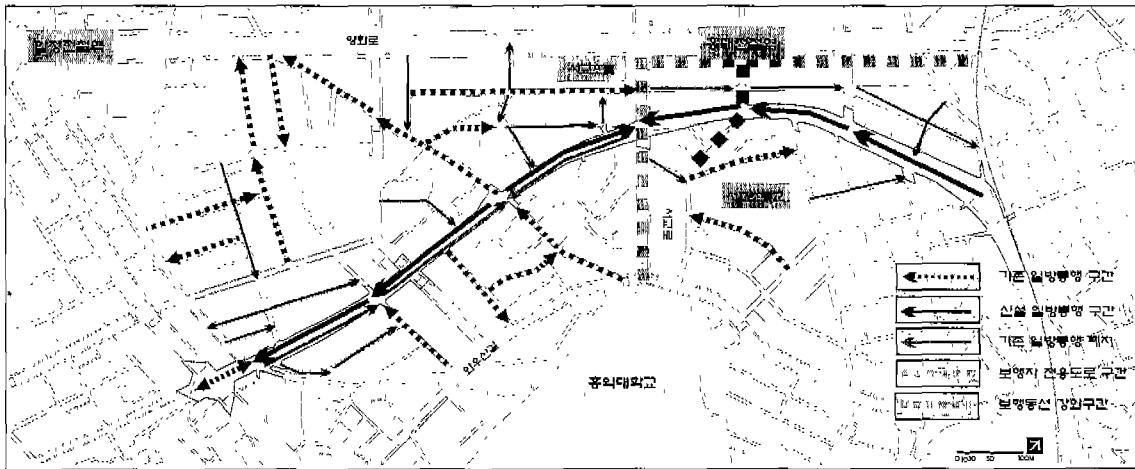


그림 14. 동선계획

으며 신공항철도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4. 포장 및 시설물 계획

포장 패턴은 한강, 황포 돛단배, 짧은이의 자유 분방함을 표현하는 곡선과 다양한 격자 패턴을 사용하여 울동감과 경쾌함을 도모하였으며 피아노 건반을 나타내는 직선의 패턴을 전체 공간에 도입하여 통일성과 균형감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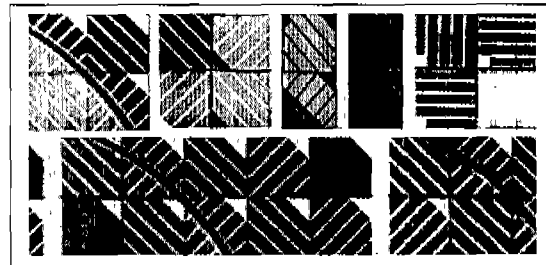


그림 15. 포장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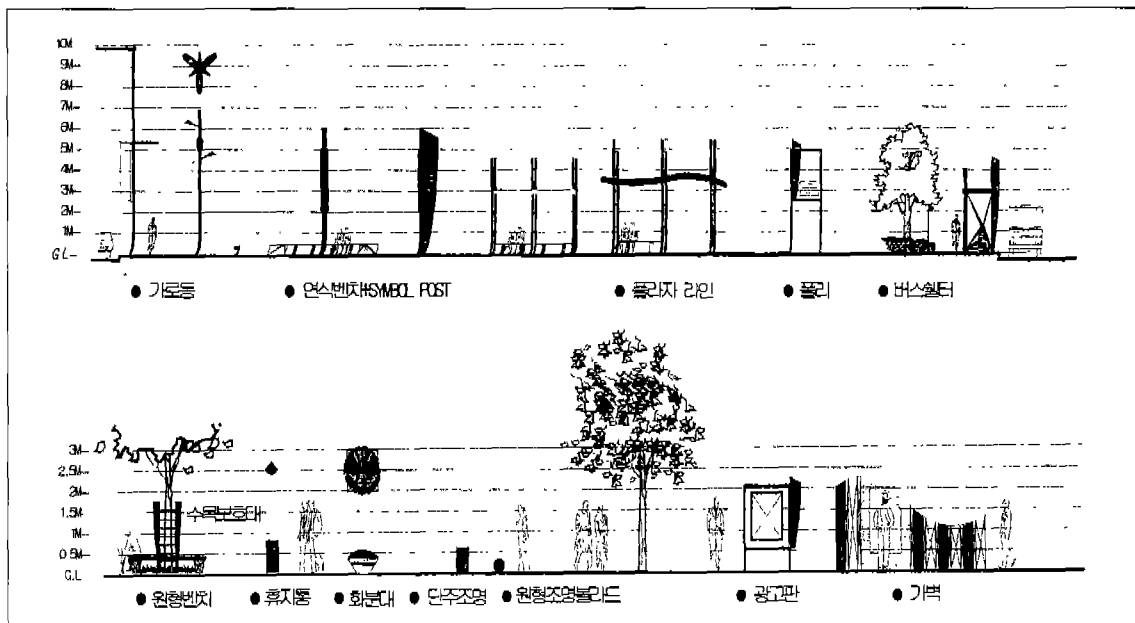


그림 16. 시설물 입면도

시설물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 청년문화를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고 마포구의 심볼 도형인 타원을 사용하여 가로와 활기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시설물을 계획하였다. 조명과 스피커 등이 부착되어 있는 플라자 라인을 주요 포켓 광장에 설치하였고 각종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들을 부착할 수 있는 폴리들을 설치하여 각 포켓에 시각적 흥미 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벽화를 전시할 수 있는 가벽을 설치하였으며 가로수는 느티나무와 화려함을 강조하는 왕벚을 겸용하되 주요 이벤트 포켓 주변에는 마포구의 심볼 수종인 붉은 단풍과 백목련을 식재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장 패턴과 시설물들의 디자인 방향이다.

IV. 결론

지역과 장소에 대한 배려 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디자인의 가로를 본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인지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며 이는 주위 환경과의 연속성 또한 상실시킨다. 따라서 특정 디자인을 모방하여 가로에 재현하기보다는 장소의 재인식을 통해 지역 특유의 문화를 표현해 가로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홍대앞은 서울시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대학 예술 문화라는 지역 특유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펍크, 락 등 소위 인디 음악(indi music)이나 언더 미술(underground art) 등의 자생 청년문화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는 일차적 목적 외에 지역 특유의 공간적 맥락 속에서 '문화가 읽히는 길'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여 본 연구를 풀어나갔다.

공간 이용과 동선 계획에 있어서는, 길의 시작과 끝에 동교 마당과 서교 마당을 조성하여 마포구의 역사성을 구현하였고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도로선형의 일부를 곡선으로 하거나 주요 결절부에 협프를 설치하여 차량의 과속을 방지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강, 황포 돛단배, 젊은이의 자유 분방함을 표현하는 곡선을 포장 계획의 주된 개념으로 삼는다면 가건반 녹지, 스크린, 폴리, 야외부스와 스피커, 조명이 달린 플라자 라인 등의 시설물 설계에서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제들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문화는 거리에 가장 매력적인 개성을 부여하며 자본과 유행이 쉽사리 만들지 못하는 강한 흡인력을 자생시킨다. 현재의 홍대앞길이 가지는 청년문화도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이를 양생적 그리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과 설계는 이러한 지역 특유의 문화를 통해 자생 청년문화가 읽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거리가 서울의 다른 가로와는 차별성이 있는 밀레니엄 청년문화가 읽히는 길고 싶은 거리,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명소가 되는 기회가 되리라 여겨진다.

주 1. 편집자 주 : 본 설계작품은 2000년 6월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이 주최한 '마포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현상공모전'의 당선작품입니다.

원고접수: 2001년 8월 31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10월 4일

한국조경학회 조경작품평가기준 제 4조에 의거하여 심사